濟州道 公演藝術 振興策에 關한 小考

金 淇 源*

目 次

Ⅰ. 序 論
Ⅱ. 地方藝術行政의 理論的 背景
Ⅲ. 濟州地方 藝術行政의 實態와 課題
Ⅳ. 濟州 公演藝術 振興 方案
Ⅴ. 結 論

Ⅰ. 序 論

예술은 한 국가가 역사를 개척할 수 있는 잠재력의 척도가 된다는 데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강력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 일변도의 성장 전략은 물질주의적 발전의식이 지배하게 되었다. 개발과 성장의 최종목표가 인간의 바람직한 생활의 질(quality of life) 向上에 귀착되는데도 내면적 가치를 소홀히 취급하여 비인간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결국 인성의 소외가 수반되는 양적인 성장과 팽창의 논리는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인간다운 삶을 위한 질적향상의 논리가 주목받고 있다.[1] 즉 문화예술은 가시적인 힘이 아니라 잠재적인 힘으로 자발적인 사회통합, 국민통합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국가경제를 강력한 힘으로 결속시키고 가속화 시킨다는 것을 알아야겠다.[2] 그런데 문화권(Cultural Rights as Human Rights)은 당초부터 성장정책에서 경시된채 중앙과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농간의 심한 불균형현상이 누적, 심화되어 지역간의 여러가지 격차를 야기시켰다.[3] 또한 편향적 성장으로 문화예술 분야는 사회과학적 연구도 실증적 분석이나 평가가 곤란한점과 외국의 문화예술정책의 여

* 碩士學位課程 一般行政專攻 5學期

1) 김민식, "한국예술진흥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서울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1991), p. 1.
2) 최진용, "지방문화현황과 발전방안", 정경문화 통권 제179호(1980), p. 375.
3) 金炳翼, "지방문화예의 시각과 전략", 「思想과 政策」, (1985. 겨울號), pp. 143-154.

러가지 견해는 발전 저해의 요인이었다. 우리나라의 사회과학연구에 주도적인 파라다임을 제공하여 왔던 미국에서는 문화정책이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없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공정책으로는 있지만 정부정책으로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4] 그런가 하면 프랑스의 문화적 오늘의 번영은 프랑스만이 갖고 잇는 독특한 문화정신에서 출발하고, 또한 프랑스의 독특한 예술은 독특한 프랑스정신이 있다[5]는 프랑스의 예술행정은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이다. 그리고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등은 중앙, 지방정부가 사회의 역기능의 순치기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인식, 예술진흥에 정책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1972. 8.14. 법율 제2337호로 1993. 3. 6. 까지 4회 개정)을 제정 국가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제주성장의 추진과정속에 예술정책은 찾아 보기 어렵다. 1963年 5.16군사혁명정부가 『濟州道 自由地域設定 構想』을 출발로 1971年 『濟州道綜合開發10個年計劃』, 1973年 『濟州道特定地域觀光綜合開發計劃』이 건설부, 청와대 등 중앙정부가 수립, 추진되어 왔다. 1985年 『特定地域濟州道綜合成長計劃』, 1985年 『濟州道 綜合開發計劃』이 제주도가 주관이 되어 수립, 추진했다. 주요계획은 대부분 경제와 사회성장에 중점을 두고 문화예술계획은 1985年 『特定地域 濟州道綜合開發計劃』의 「예술인협회 육성」 정도로 무관심, 소외되었다. 1993年 『濟州道綜合開發計劃(案)』의 「문화예술진흥계획」은 제주지역발전의 원동력의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이같은 시점에서 앞으로 제주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연예술에 관한 행정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본다.

Ⅱ. 地方藝術行政의 理論的 背景

예술이란 어떤 일정한 재로와 양식·기교 등에 의하여 미를 창조하고 표현하는 인간의 활동, 또는 그 산물·문학·음악·회화·조각·연극·영화 따위.[6]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예술은 美를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구체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다. 예술의 美는 바로 그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존립하게 된다.[7] 이와같이 예술은 인간정서를 순화시켜

4) 鄭弘翼, "文化行政研究", 한국행정학보, 제25권(1992), p.230.
5) mbc뉴스데스크, 프랑스 彫刻家 「세자르 발다치니」記者會見, 1993.9.16
6) 동아국어사전연구회, 동아새국어사전, (서울 : (주)동아출판사, 1992), p.1705.
7) 白琪洙, 美學, (서울 : 서울大學校 出版部, 1992), p.10.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술행정은 전통적으로 문화행정으로 규정되어 왔다.[8] 그리고 예술행정의 범위는 현실적 방법으로 문화체육부의 직제 규정에 따라 조형미술(회화, 공예, 디자인, 환경미술 등)과 공연예술(음악, 국악, 연극, 무용, 연예 등), 문학, 영화에 관한 업무로 되어 있다. 예술행정이란 예술활동에 대한 행정적 접근을 통해서 예술이 지향하는 바 가장 고귀한 목표를 합리적이고도 능률적으로 성취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문화창달을 국정지표로 내걸고 청소년 문화활동이나 지방문화육성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고 있다. 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가치들을 조화와 균형 속에 발전시키는 일이며, 그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직으로서 예술행정의 필요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이같은 정부의 의지가 국민적 문화운동으로 확산되고 결실되기 위해서는 예술가와 대중과 정부를 연결하고 촉매시키는 또하나의 전문가가 필요하며 이들의 역할이 예술행정이라는 개념으로 정리될 수 있다.

1. 藝術行政의 槪念

예술행정에 있어서 현재와 같은 복잡한 업무는 서구사회에서는 18세기말 대체로 형성되었다. 이 시기에 처음으로 사람들의 여가생활을 겨냥한 전문직이 생기면서 전문화 방법론이 거론되기 시작하여 19세기에 접어들어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오늘날에는 보다 분화되고 전문화된 직종으로 각광 받기에 이르렀다. 예술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 활동하기 때문에 관료제적 합리성을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방치하면 예술의 향수권의 보장문제를 비롯,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비경제성 때문에 예술발전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예술활동을 유발시키기 위한 예술행정의 당위성과 필요한 역할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예술을 관리하는 것을 예술행정이라 한다. 그러나 보다 엄밀히 정의를 하면 행정이란 조직이 가지는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적, 협동적 노력이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력과 물자을 동원, 조정, 관리, 통제하는 활동 또는 과정을 말하며 공공정책형성 및 정책의 합리적인 구체화를 의미하는 것이다.[9] 즉 "예술행정이란, 문화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공권력의 배경하에 문화예술정책을 형성 내지 결정하며 이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합동적인 집단행위라 정의할

8) 정홍익, "문화행정연구", 「행정논총」 제27권 제1호(서울대 행정대학원, 1989), p235.
9) 이종인, "문화예술행정이란 무엇인가?" 문화예술, 통권 104호(1986), p. 3.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정의는 행정주체가 公行政(Public Admininstration)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私行政(Business Adminstration)의 경우에도 해당된다.[10]

이렇게 문화정책에 있어서 예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중요시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단순히 예술자체만의 발전을 위해 예술행정이 설계되기 보다는 예술행정은 보다 폭넓은 문화목적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진정한 이슈(issue)는 문화의 주체적 발전을 기하는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술은 그 자체 홀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술을 생성시키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음을 알아야 하며 그 조건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만 올바른 예술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예술진흥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고 자유만을 보장해서는 진정한 예술의 발전을 기하기 어려울 것이다.[11] 이렇게 예술행정을 여러가지로 정의할 수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行政法學的, 行政學的 다시말해 관리적 개념이다. 흔히 말하는 현대적 행정은 행정학적 의미로 그 개념은 조직인 가지는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목적 달성을 위해서 두 사람 이상이 모여 협동하는 행위(cooperative action)이며 합리적인 행동(rational action)이라 한다. 또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람과 물자를 동원·조정·관리·통제하는 활동과 과정을 말한다. 그리고 公共政策 및 정책의 합리적인 구체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문화발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계획적, 협동적인 노력, 인적·물적자원을 동원하고 조정하며 관리·통제하는 활동 또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문화예술정책을 형성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구체화하고 선택된 예술을 선택된 대중에게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이것을 실천하는 시책을 펼쳐나가는 것을 예술행정이라 할 수 있다.

2. 藝術行政의 領域

예술행정의 문화행정으로 규정되어 온 것은 문화행정이 순수예술적 시각에서 규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예술적인 인식이 대두됨에 따라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행정을 예술행정으로 규정짓고 새로운 예술행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예술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내지 개입하는 점에 대해 논란이 있다. 개입을 반대하

10) 韓國文化藝術振興院, 문화예술총서1, 藝術行政 (서울 : 1987), p. 29.
11) 宋河珍, "韓國 藝術行政에 關한 硏究", 석사학위논문, (서울 : 서울대 행정대학원, 1981), p. 30.

는 순수예술론과 개입을 당연시하는 사회예술론이다. 그러나 현대산업국가는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지원을 정당하다는 주장의 논리로서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는 시장기능에만 방치하면 예술이 바람직한 발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2] 그리고 정부지원을 정당하다는 주장자의 논리로서 예술에 대한 투자가 부수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는 데서 기인되어 제시되기도 한다.[13] 그리고 정부개입의 찬성론자들이 여러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는데, 이들은 대체로 경제적 분석에 기초한 시장 실패론과 기타 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14] 결국 예술발전은 행정적 지원없이는 어려워 행정이 뒷받침을 하여야 한다. 예술행정의 범위는 현실적 방법으로 문체부의 직제규정에 따라 조형미술(회화·공예·디자인·환경미술 등)과 공연예술(음악·국악·연극·무용·연예 등), 문학, 영화에 관한 업무로 되어 있다. 전통적인 예술행정의 영역을 보면, 첫째는 예술인의 양성과 교육으로 학교교육과정이나 전문훈련기관의 설립이나 운영을 지원, 조정하여 예술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둘째는 예술활동에 지원으로 창작활동에 따른 소득에 대한 조세상의 혜택, 저작권보호 등 간접적인 지원방법, 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예술작품 또는 공연을 직접 의뢰, 주최하는 직접적인 지원도 있다. 셋째는 예술보급분야로 공연예술인 경우 공공시설을 직접 운영, 또는 민간운영의 영리, 비영리 공연시설에 대한 보조를 통하여 공연활동을 용이하게 한다. 비공연예술인 경우는 전시공간을 제공, 출판물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의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일이다.[15] 이렇게 볼 때 지방예술행정은 지방예술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추진, 개발해나가야 한다. 따라서 지방예술행정의 영역은 지방예술가들의 예술적 창작성과 재능의 발현을 자극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단계를 마련해야 하며, 삶의 질에 관련된 결정에 예술가들의 참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16] 정부가 예술지원을 통해 추구해온 것은 경제적인 면을 많이 볼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관광외화수입의 중요한 출처가 되는 것이나 미국의 도시의 지원되는 기본적 목표로 「문화산업(Cultural industry)」을 보다 큰 관광 혹은 오락산업의 일부로 여겨왔다. 사회적 가치에

---

12) Dick Netzer, *The Subsidized Muse : Public Support for the Arts in The United State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pp. 159-160.
13) Dick Netzer, *The Subsidized Muse* : pp. 161.
14) Kelvin V. Mulcahy, "The Rational for Public Culture," in Kelvin V. Mulcahy and C. Richard Swam (eds), *Public Policy and the Arts* (Boulder, Coiorado : Westview Press, 1982), pp. 33-58.
15) DickNetzer, *The Subsidized Muse*, pp. 28-32.
16) 정홍익, "문화행정연구", pp. 239-240.

의해서 예술이 평가받아야 한다는 사회예술론의 관점에서 보면 예술은 사회의 기반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도 심미적인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사회에 대한 기여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술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종래의 예술행정 영역에 대한 수정을 가하고 있다. 그래서 종래의 예술가 중심의 행정으로부터 소비자 중심의 행정에로의 전환으로 예술의 사회적 효과에 있어서 질에 못지 않게 량적인 고려가 중시되고 있다. 또한 예술영역확대의 주요대상으로 시민문화활동의 있어 전문예술가에 못지않게 시민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생활의 문화화라는 곧 예술의 창작적 과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술행정영역은 작은 지역단위의 수준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며 시민이행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행정의 효과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3. 地方藝術行政의 機能

많은 나라들이 예술행정수립의 제1원칙을 지방분권화에 두고 있다. 이것은 문화적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고, 문화활동이 생활양식의 변천에 보조를 맞추도록 하려면 정책의 목표와 그 수단은 지역적 차원에서 고안되어야 하기 때문이다.[17] 지금까지 예술행정의 비중에 따라 그 나라의 예술발전의 기여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일반행정과는 다른면을 지니고 있고, 예술행정만이 갖고 있는 독특함이 있고 예술행정가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갖추어야 할 점이 많다. 그래서 예술행정가의 세가지 전통적인 역할은 기획, 활성화,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이다.[18] 즉, 지방예술행정의 기능은 1) 문화기획 2) 부문별관리 및 집행 3) 예술경영관리 4) 평가 및 조사연구로 분류하는 문화행정의 기능속에,[19] 문화예술진흥위한 예술창조집단과 지역민과의 가교 역할과 예술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등 기획부문,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등 문예활동과 공연예술 등의 운영관리나 문화예술 전문요원 양성 및 연수에 관한 부문관리 및 집행부문, 예술문화 공간시설을 관리하고 문예행사 부문을 실제로 시행, 예산확보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를 문화촉매기능을 함께하는 예술

17) 이종인, "예술행정의 전문화", 문화예술, 통권 109호(1987), p.44
18) John Pick, *Arts Administration* (London : E. &. F.N.Spon Ltd, 1980), p.7.
19) Dick Netzer, *The Subsidized Muse*, pp.159-160.

경영 관리부문, 예술수요 측정과 미래예측에 대한 조사, 분석하는 조사연구부문을 예술행정의 기능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예술행정가에 대해 영국에서는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첫째 예술가를 대중에게 가까워지게 하는 일, 둘째는 예술가를 특정지역 사회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일, 세째는 지역사회의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일 등이다. 즉 참여촉진과 청중교육, 그리고 전문예술인의 발굴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예술행정에 창조가 없고 정서적 참여의식이 없으면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 예술행정가란 개념상 예술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은 행정에 대한 것이 주관심사다. 예술행정을 담당한 사람은 자신이 창조하는 대신 다른 사람의 창조적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최고의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

Ⅲ. 濟州地方 藝術行政의 實態와 課題(公立藝術團을 중심으로)

제주도의 문화예술행정은 제주도청의 문화예술체육과와 4개 시·군 조직, 그리고 사업소인 제주도문화진흥원으로 조직상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20] 제주도 지방예술행정의 실태와 과제를 공연예술단의 운영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1. 文化藝術行政 現況

1) 濟州道 市·郡 擔當職制

가. 文藝行政組織 配定

〈表 3-1〉에서와 같이 제주도 지방예술행정요원은 대부분 일반행정직으로 배정되어 예술행정은 전문성은 배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화관광지를 조성하고 이에 대한 여러가지 대책에 부심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문화예술행정직에 전문요원이 아닌 일반행정직원의 배정현실은 오늘의 문화예술행정직에 대한 행정의 인식을 증명하여 주고 있다.

---

20) mbc뉴스, 1994.2.5. 09 :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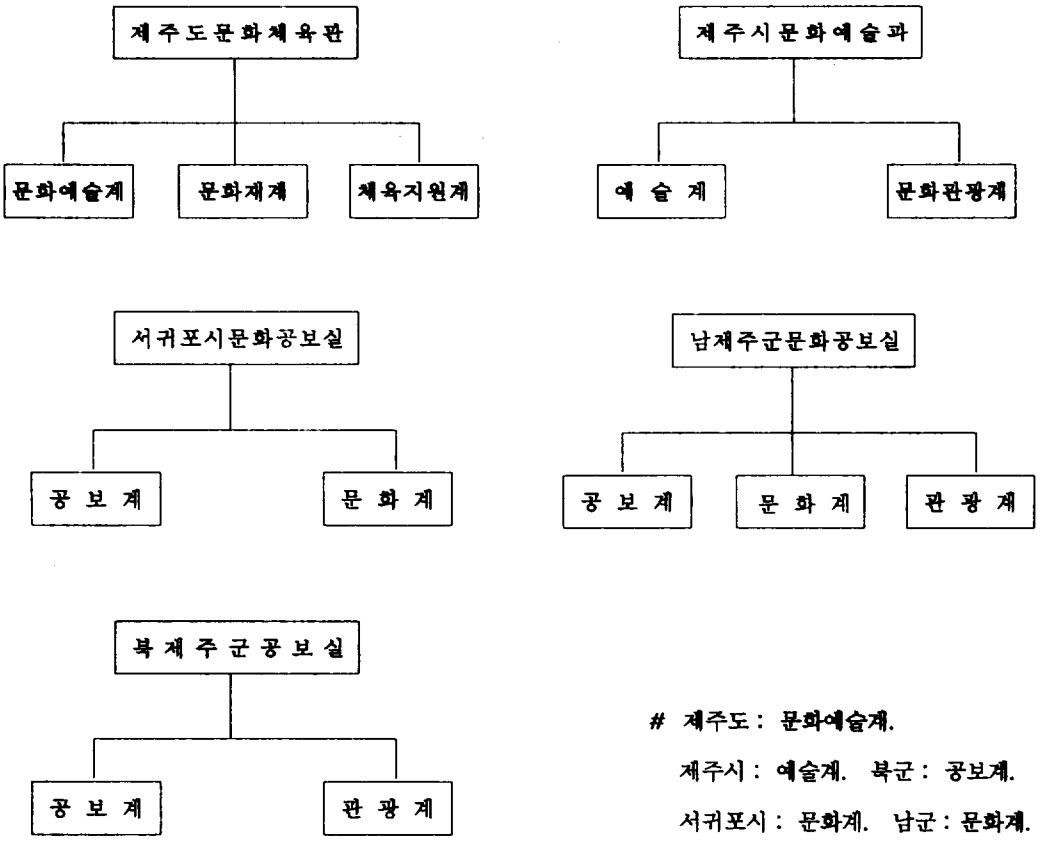
〈表 3-1〉

구 분	행정5급	지방5급	지방6급	지방7급	지방8급	지방9급	별정직	계
제 주 도	1	1	1	2			5급(1)	6
제 주 시		1	2				8급(1)	4
서 귀 포			1		1	1		3
남 군			1					
북 군		1	1	1	1			

* 기능직 제외 자료 : 제주도, 시, 군 조례집

나. 藝術行政 事務分掌

〈表 3-2〉



제주도 : 문화예술계.
제주시 : 예술계. 북군 : 공보계.
서귀포시 : 문화계. 남군 : 문화계.

〈表 3-2〉에서 처럼 도·시·군의 예술행정의 조직자체가 자치단체별 편의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술을 전담하는 독립된 부서는 제주도와 제주시다. 국제관광지를 위한 기반조성을 하고 합창단이 조직구성되어 있는 서귀포시는 효율적인 예술행정과 문화관광정책 개발을 위하여서도 예술을 전담하는 독립된 부서가 필요하다.

2) 濟州地方 公演藝術 行政組織 現況

가. 제주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 목적 :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의거 제주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관한 규정
* 구성 : 13명(당연직(4) 도지사, 부지사, 내무국장, 부교육감,
위촉위원(9) 예술계 : 5 문화계 : 3 지방의회 : 1)
* 임기 : 4년
* 기능 :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지방전통문화예술의 전승개발에 관한 사항. 기타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위와 같이 지방의 문예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기여를 위하여 이 분야의 심의기관으로 조직되어 있으나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문화예술인이 아닌 인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문화예술계의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제주도문화진흥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직급이 제주도청의 내무국장과 문화예술체육과장 보다 높지만 예산과 인사 등 모든 문화예술관련업무를 오히려 통제 받고 있습니다.[21] 이것은 구성에서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내무국장(서기관)보다 직급상 상위직인 문화진흥원장(지방부이사관)의 당연직에서 제외한 것을 봐도 명목상으로 그치고 있으며, 제주도 문화예술행정의 핵심인 문예진흥기금·도문화상 심사위원에서 제외됐다. 이밖에도 문제점을 요약하면, 1) 1993년 7월 12일에 위촉된 위원들 가운데는 제주도의 다른 위원회와 중복으로 위촉을 하고 있는 위원이 4명이나 되어 있고 음악분야에는 위촉이 없다. 형식상 위원을 위촉하는 등 관련공무원들은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위원회의 활동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

21) mbc뉴스, 1994.2.5. 09 : 50

형식상 존재하는 기구가 되고 말아 도민이나 예술인들로부터 기대는 물론 존재여부마저 관심이 없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 2) 종합적으로 예술에 대한 기본사항을 검토를 위하여서는 폭넓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여 전문위원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 3) 위원회의 명백한 책임과 권한규정이 없이 활동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업무대상도 기본시책 및 계획과 기반조성사항 등 업무규정이 확실치 못한 상태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임의적 해석 즉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위원회 활동이 되어 결국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는 형편이다.

나. 濟州道文化振興院

* 목적 : 고유전통문화의 전승·개발을 통한 향토문화예술진흥과 문화예술공간 확충으로 도민의 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방문화 활성화를 기한다.
* 업무 : 전통문화의 수집 및 전승개발, 문화예술단체 지도 및 육성, 공연계획수립 및 공연물 유치, 제주도민속예술단 운영, 타지역과 교류 공연예술무대요원 양성 등

〈表 3-3〉 조직정원 배정

구분	지방3급	지방4급	지방5급	지방6급	지방7급	지방8급	계
인원	1	1	2 (1)	6 (2)	7 (3)	1	18 (6)

註 : ( )는 별정직, 기능직 제외

자료 : 제주도 조례집

〈表 3-3〉에서 처럼 제주예술행정의 중추를 이루는 문화진흥원에도 일반직이 전문직(별정)보다 많고 정책결정은 일반행정직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각 부서 임무도 전문직의 임무와 일반직에 임무가 바뀌어 있는 실정이다.

3) 濟州道, 市, 郡 文化藝術部門 豫算內譯

가. 文化藝術豫算 比較

〈表 3-4〉

(단위 : 천원)

단 체 별	'92			'93		
	전체예산	문화예술	%	전체예산	문화예술	%
제 주 도	126,834,169	5,182,588	4.1	150,494,211	5,250,362	3.5
제 주 시	66,812,176	697,644	1.0	84,685,683	2,387,499	2.8
서귀포시	36,970,861	733,285	2.0	41,806,987	777,286	1.9
북제주군	55,607,444	900,899	1.6	61,038,725	870,092	1.4
남제주군	41,309,729	1,287,560	3.1	49,642,960	1,503,990	3.0
합 계	327,534,379	8,801,976	2.7	387,668,566	10,789,299	2.8

* 일반회계 예산 기준
* 자료 : '92-'93년도 제주도, 시, 군 예산서

〈表 3-4〉에서 처럼 제주도와 남제주군의 예산이 비중이 높은 것은 다음 〈표 3-5〉에서 나타나지만 문화재관리 부문이 있어서 높다.

나. 濟州道, 市, 郡 文化藝術部門 項目別 豫算內譯

〈表 3-5〉

(단위 : 천원)

단 체 별	'92				'93			
	문화예술	%	문 화 재	%	문화예술	%	문 화 재	%
제 주 도	2,613,971	50.4	2,568,617	49.6	2,449,013	46.6	2,801,349	53.4
제 주 시	417,865	59.9	279,779	40.1	1,820,579	76.3	566,920	23.7
서귀포시	591,270	80.6	142,015	19.4	667,659	85.9	109,627	14.1
북제주군	78,550	8.7	822,349	91.3	99,563	11.5	770,529	88.5
남제주군	84,827	6.6	1,202,733	93.4	198,372	13.2	1,305,618	86.8
합 계	3,786,483	43.0	5,015,493	57.0	5,235,186	48.5	5,554,043	51.5

* 일반회계 예산 기준
* 자료 : '92-'93년도 제주도, 시, 군 예산서

〈表 3-5〉와 같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음악단체운영과 문화재가 있어 문화예술에 절대적 투자를 보이는 반면 군지역은 문화예술에 전혀 투자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濟州 公演施設 現況

공연시설은 문화시설의 형태와 기능속에 음악, 연극, 무용을 공연할 수 있는 장소를 나타낸다. 즉 문화시설이란 광의로는 문화회관, 공연장, 극장,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공간과 더불어 문화활동을 하기 위한 제반 문리적 수단의 모든 것이 포함된다. 이렇게 공연시설은 문화예술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공연예술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공연기반시설의 절대부족은 공연예술에 미치는 영향 지대하다. 〈表 3-8〉에서 보는 것처럼 제주도내 공연시설은 체육시설과 병행하는 시·읍민관이 정도이고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시설의 공연장이 절대 필요하다.

〈表 3-6〉

구 분	제 주 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계	비 고
시·읍 민 관	1	1	1	1	4	* 시·읍민관은 체육행사와 병행사용
종합문예회관	1	1	-	-	2	
계	2	2	1	1	6	

* 자료 : 제주도, 제주도문화현황(1992) 재작성

2. 濟州公演藝術의 實態

1) 濟州公演藝術團體 現況

〈表 3-7〉

구 분	음 악	무 용	연 극	국 악	계	비 고
공 립	2(1)	1	-	-	4	제주도민속예술단은 무용으로 분류
개 인	15(40		11			
회 원 수						

* ( )은 기악연주단체

* 자료 :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 1993

〈表 3-7〉에서 보는 것처럼 공연예술단체 있는데 그나마 서양음악에 치우쳐져 있다. 종합예술인 연극은 물론 국악분야의 공립단체, 직업극단이 없어 균형적인 육성의 문제가 제시된다.

2) 濟州地方 公立藝術團 現況

1) 構　　成

〈表 3-8〉

(1993. 10. 31 현재)

구　분	단　장	단　원	고　졸	일반대학	전공대학	기　타	비　고
제 주 도 민속예술단	문화진흥 원　장	28	19	4	5	-	
제주시립 합 창 단	부 시 장	56	-	14 (3)	38 (1)	-	
제주시립 교향악단	부 시 장	51	-	3	48	-	
서 귀 포 시립합창단	부 시 장	53	18	12	11	2	

* 전문대는 대학속에 포함하고 ( )은 전문대

* 자료 : 제주도, 각 시·군조례집

〈表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립예술단을 지휘, 감독하는 단장이 일반행정직이고 단원구성도 전문교육을 받은 단원이 제주시립교향악단을 제외한 단체는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다. 제주도립민속예술단과 서귀포시립합창단은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공부한 단원이 너무나 적다. 그리고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공연예술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전문예술단체로서 발전하는데 한계를 갖는 문제를 안고 있다.

나. 報 酬

〈表 3-9〉

(월지급액, 단위 : 원)

구 분	지 휘 자	안 무 장	단 무 장	수석단원	단 원	비 고
제 주 도 민속예술단	797,500	587,500	479,000	469,000	404,500	# 제주시 합창·교향악단 비상임 단원 수당은 70,000원, 서귀포시는 60,000원
제주시합창 · 교향악단	746,500 *899,000	*503,000	396,000 *420,000	238,500 *306,500	218,500 *286,500	
서 귀 포 시 합 창 단	250,000 (비상임)		90,000 (비상임)		272,000	

註. *은 제주시립교향악단 보수.
- ○ 제주도민속예술단은 기능직공무원 보수규정 5호봉 적용.
- ○ 제주시립합창, 교향악단은 시립단체 월급여액 규정 5호봉 적용.
- ○ 서귀포시합창단은 월보수지급표 5호봉 적용

자료 : 제주도 시 · 군조례집

〈表 3-9〉와 같이 단원에 대한 보수가 일정치 않다. 제주도민속예술단을 제외한 단체는 상근단원마저 최저생활비 보장도 어려운 실정이다. 단원구성도 많지 않은 실정에 비상임단원으로 구성되는 것은 공립예술단체가 추구하는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예술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으로 볼 수 있다.

다. 濟州道 文化藝術振興基金

* 목적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문예진흥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규정.
* 조성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금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수익금 및 住民, 단체의 기탁한 성금 등
* 운용 : 문학, 미술, 음악, 연예 등의 활동지원을 비롯한 문화예술진흥 지원.
* 제주도 문예진흥기금 조성

공연예술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지원금의 교부는 바로 공연의 질과 량에 연관된다. 제주지방인 경우엔 문예진흥기금 조성도 중앙정부의 여러가지 혜택이 없어진 1990년 이후 독지가나 기업인들로 부터 성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기금조성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表 3-10〉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정부가 지원금을 제외하면 자체 조성기금은 너무나 빈약한 것을 알 수 있다.

〈表 3-10〉

(1993. 10. 31 현재)

구분 년도	기 금 액 (연 초)	이 자 수 입	이 자 중 지 원 액	이 자 중 적 립 액	중 앙 지 원 금	성 금	연 말 기 금 잔 고
'84		19, 381			225, 000		244, 381
'85	244, 381	50, 833			125, 000	5, 000	425, 214
'86	425, 114	83, 071			125, 000	4, 891	618, 176
'87	618, 176	89, 874			125, 000	17, 500	850, 550
'88	850, 550	111, 858			125, 000	5, 000	1, 092, 408
'89	1, 092, 408	146, 051			125, 000 *40, 000	1, 810	1, 405, 272
'90	1, 40, 272	177, 778			125, 000 *40, 000	15, 000	1, 762, 758
'91	1, 762, 758	214, 778	85, 061	129, 717			1, 892, 475
'92	1, 892, 475	249, 711	112, 600	137, 111			2, 029, 586
'93	2, 029, 586						

註. 성금(기업인 · 독지가). * 자치단체지원금

자료 : 제주도, 제주도문화현황(1992)

○ 제주도문예진흥기금은 1984년부터 1999년까지 30억원 목표로 조성.

○ 현재까지 조성재원은 중앙문예진흥기금 9억7천5백만원, 도 · 시 · 군 및 일반성금 1억 2천여만원, 과실금 9억여만원 등 1992년말 20억원

* 문예진흥기금 지원현황

〈表 3-11〉

(단위 : 백만원)

연 도	지 원 건 수	지 원 액	비 고
1991	29	85	
1992	43	113	

자료 : 제주도, 제주도문화현황(1992)

〈表 3-11〉에서 보는 것같이 지원금은 건당 29십만원정도로 되어 있다. 이러한 지원금도

규격화되고 일률적인 규정 적용에 의한 지원으로 생각되기 쉽다. 예술의 지원은 상황과 필요에 탄력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보다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되어야 한다.

3. 濟州地方 公演藝術振興의 課題

1) 形式的 藝術行政

지역문화에 대한 행정의 역할은 문화발전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22] 지역의 예술활동에 미치는 비중의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예술행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되고 있다. 예술진흥시책 수립하고 기획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운영이 체계화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전문성을 살린 조직이 아니라 기존 기구에 형식상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예술진흥책 수립과 지원하는데 효율적·효과적으로 기여치 못하고 있다. 행정지원체계도 다원화되어 있는데다 지원 인력부족으로 인한 일관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역특성을 살린 육성지원책이 수립되지 않고 시작한 공연예술단 운영은 형식적이고 전시 효과적이어서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예술행정에 대한 행정의 인식은 제주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등 육성지원책을 자문하는 기구들의 형식적 구성, 활동은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예술발전을 위한 연구기능과 평가, 분석 연구할 연구소가 설립되어 있지 않아 자료가 필요한 공연예술기획에 체계적인 지원할 방법이 없다. 결국 예술활동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형식적인 기구조직이 아닌 전문화된 예술행정이 이뤄져야 한다.

2) 公演藝術 觸媒 基盤의 脆弱

제주는 예술발전을 위한 기반에 있어서 무척 모자라다. 첫째가 전문인력이 대단히 필요한데 공립예술단원의 구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력의 한계가 있다. 고급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 제주대학 이외에는 없어 확보에 더욱 어려움이 있다. 공립예술단원에 대한 보수가 적어 능력있는 인력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단기계약으로 인한 심적 안정을 가질 수 없어 단체예술인 공연예술에서는 인력부족을 더 한층 가중시키고 있다. 둘째는 시설이 너무 모자라 예술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되고 있다. 공연장으로 시설이 제대로 갖추

22) 박이준, "한국문화행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 : 한양대학교 대학원, 1990), p. 211.

어 있는 곳이 단 한군데인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뿐이어서 공연예술의 활성화는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인적, 시설면에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관객과의 유리감이 심화되고 홍보전략 마저 제대로 세울 수 없어 공연예술 촉매기반의 취약을 드러내고 있다.

3) 財政確保의 限界性

재정확보 중앙문예진흥기금에 의존하여 왔다. 지방문예진흥기금에 대한 법적, 행정적 지원 수단의 부족으로 독지가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지방정부의 지원금도 예산책정에서 미미한 것이다. 공연예술의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재정지원은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기금확보가 요원하여 예술경영차원의 공연으로 자체적 재정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Ⅳ. 濟州 公演藝術 振興方案

1. 行政支援

예술행정은 적극적인 문화정책이 뒷받침 되었을 때, 더욱 발전해 갈 수 있고, 문화정책은 예술행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지원의 근거를 가질 수 있는 상호 유기적 관계에 있다.[23] 세계 각국은 민족문화의 주체성을 유지, 장려하고 지방주민의 예술향수 기회증대와 문화산업적 차원에서 문화정책을 펴왔다. 비용과 수익만을 생각하는 시장실패론의 원리는 공연예술에서는 항상 위험부담을 안고 있어 새로운 예술세계를 개척하려는 노력이 없다. 또한 공연예술은 산업사회의 여타 생산부문과 시장에서 생산성 경쟁할 수 없는 구조적인 취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기타 공연외 수입포함)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는 주장처럼 전반적으로 공연예술은 자본투자를 통하거나 규모의 경제성 효과 등을 볼 때 행정지원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정부의 지원으로 인한 간섭과 통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실로 봐서 행정지원없이 공연예술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지방문화를 활성

---

23) 김성수, "한국공연예술행정의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1990), p. 56.

화하기 위해서는 지원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24]

2. 濟州藝術行政의 一元化와 專門化

현행 예술행정체제가 다원화된 것을 우리는 전장에서 보았다. 공연예술인 경우 도립민속예술단 제주시가 합창, 교향악단, 서귀포시합창단으로 그 운영규칙이 제각기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행정처리도 이원적 조직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적은 행정인력에 다시 분류하는 것보다 제주예술행정을 통할하는 일원화기구는 지방자치시대 전문화되는 행정조직의 바람직한 방안일 것이다. 현재 제주도의 공연예술의 활동 중심으로 되어 있는 제주도 문화진흥원의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과 제주도에 문화예술국을 두고 전문화되고 일원화된 조직이다. 공연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재의 행정을 보다 전문화 시키기 위하여 제주도와 각 시·군의 예술담당공무원 인력을 통합하여 제주도 예술행정을 「제주도 문화예술국」이나 「제주도 문화진흥원」이 총괄하면 행정의 효율적 운영이 될 것이다. 그것은 첫째 재정적 측면에서도 인력을 통합하면 인건비 등 행정전반에 절약을 가져오는 운영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둘째 행정의 전문화이다. 예술행정분야를 전문화 시키면, 예를 들어 공립예술단 운영도 현재 음악과 무용분야인데 연극과 국악 그리고 민속공연예술을 보존, 발전시키는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립예술단 운영도 예술경영체제를 도입하여 예술에 있어서도 투입과 산출에 있어 보다 책임있고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다.

3. 藝術商品 開發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문화적 요소는 다양할 뿐아니라 인간의 모든 가치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관광객을 끌어 들이고 관광적 매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반요소는 각 나라로 하여금 기존의 상품전쟁에서 이른바 '문화전쟁'으로 까지 심화되게 하고 있다. 그만큼 예술의 문화상품화는 나라의 전략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 음악의 경우 가까운 홍콩에서 2-3월에

24) 김성수, "한국공연예술행정의 당면과제에 관한 연구", p. 60.

마련되는 오페라, 재즈 등 현대음악의 종합공연의 예술제는 많은 사람들을 홍콩으로 모여들게 하고 있다. 이런류에 행사는 많은데 스위스의 몬토루시에서 7월에 개최되는 재즈페스티발은 재즈음악으로 유명한 모토루의 지역행사로세 세계화된 것이다. 연극에서의 세계연극의 한 무대에서 올려지는 프랑스의 아비농과 영국의 에딘버러축제, 미국뉴욕의 브로드웨이 뮤지컬, 세계 여러곳에서 펼쳐지는 영화제 등을 보면 각 나라마다 예술발전을 위하여 지역에서 문화예술축제 개발은 장기적 안목으로 지역예술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관광과 관련된 고도의 문화전쟁을 치름으로서 세계는 하나의 문화각축장으로 전환되고 있다.[25] 이렇게 문화예술이 상품화 된다면 관광객이 집중되면 지역경제의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문화예술상품의 중요성은 앞으로 나라마다 특별한 개발과 보호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UR협상에서 문화예술 개방문제를 놓고 유럽과 미국의 대립을 보고 알 수 있었을 것이다.

4. 21世紀를 위한 文化藝術센터

공연예술공간을 비롯하여 많은 문예공간이 확보된다면 환경이 좋아지고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 크게 되므로 제주인 경우에는 공연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과 인력확보는 당연하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 제주공연예술의 기반시설과 전문인력이 취약한 것을 통계로 보았다. 보완하는 방안으로 일본농업의 一村一品 운동을 모델로 우리의 관광지구마다 제도적으로 공연예술장을 계획에 넣어 추진하고 현행 관광코오스에서처럼 제주공연예술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장소인 「제주문화예술센터」를 세우고 제주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인 제주의 관광전략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의 수입으로 공립예술단을 운영하는 방법도 바람직한데 여기에서 제주공립예술단의 운영을 경영체제로 도입하고 지방자치시대의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다. 예술의 촉매기반을 확충하고 현재 공립예술단의 보수 및 기타 지원사항을 현실화한다면 타지역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역민에게도 질 높은 예술작품들이 감상의 기회는 자주 오게 되어 지역사회에서도 지역예술에 대한 관심을 대단히 갖게 될 것이다.

---

25) 이선문, "문화관광으로의 전환을 위한 방향 모색", 제대논문집(인문, 사회, 1992), p. 192.

그리고 우수한 인력을 통한 자체교육을 관광과 연계시키는 교육행사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당장의 우수인력 확보는 해결되리라고 보고, 2000년대를 생각한다면 제주대학과 전문대학 등에 공연예술에 관련한 학과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공연예술 전문인력 수요가 늘어나면 자연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기반시설이 절대적 부족으로 인한 관객과의 유리감이 심화되고 있고 홍보전략의 미흡으로 관객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전용연습장 등 공연에 필요한 공간부족으로 인한 프로그램의 질적저하도 발전의 과제이다.

5. 効率的 支援體制의 確立

세계의 무역구조는 궁극적으로 문화와 예술의 분야에 그 민감한 이해타산의 실무리를 찾게 될 것이라는 예상과 더불어, 지적 재산권같은 서비스영역의 최종적인 종착점이라는 것도 연산해 낼 수 있다.[26] 미래의 산업으로 기대되는 예술산업은 우리가 개발해 나가야 할 과제다. 그리고 예술의 발전은 지방예술이 발전되는데서 한 국가의 예술이 다양하게 발전될 수 있다. 제주지방의 예술진흥에 있어 무엇 보다도 필요한 것은 재정확보다. 앞서 문예진흥기금 모금에 있어서 1900년 이후 제주지방의 독지가나 기업의 성금이 전혀 기탁되지 않았다. 이것은 지역민들의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이해부족과 무관심에서 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탁에만 의존하는 것은 기금모금에 행정적으로 적극성이 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점에서 예술행정의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가능하다. 즉, 성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문예진흥기금 확보를 위한 사업이나 그 밖에 기금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확실한 지원체제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하고 여기에 정기관광코오스로 지정, 함께 연결을 한다면 예술의 발전과 함께 예술경영의 새로운 정책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예술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 제주예술연구소 설립이다. 제주예술을 상품화, 고급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연수, 연구, 평가, 분석을 위한 전문요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술의 수요측정, 미래예측 등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연예술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제 확립이 필요하다.

---

26) 윤우학, "국제화시대, 우리 문화예술계의 전망과 대응책을 모색한다", 문화예술, 통권 178호(1994), p. 15.

V. 結　論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사회변동과 행정상황은 일대 전환기 시점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 자율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활성화이다. 그리고 가시적인 힘이 아니라 잠재적 힘으로 자발적인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의 기능을 가진 문화예술은 지방발전의 원동력의 결속을 가속화 시켜준다는 것을 알아야겠다. 즉 예술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을 가볍게 생각하여 왔지만 제주의 미래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21세기가 열리면 여가활용이 스포츠에서 예술로 대체된다는 주장과 이미 공연으로 제주 공연예술 발전과 함께 생각하여야 한다. 제주공연예술진흥책은

첫째 제주공연예술 작품 개발은 관광상품으로서 가치가 있어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제주도민속예술단과 합창, 교향악단, 극단 등의 질적수준 향상은 이들을 연계한 문화관광상품개발은 현재 제주관광객 유치가 문제의 장기적인 해결방안으로 될 수 있다.

둘째 지역민이 문화향수권 보장이다. 생활의 질향상의 척도가 되고 있는 예술에 대한 질적 제고는 바로 지역민을 위한 지역민의 정치와 행정을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이다. 예술행정조직의 일원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이 갖추어지면 장기적인 예산확보와 예술단운영을 사경영체제를 도입하거나 공사체제로 전환이 가능하다. 요컨데 지방자치는 지역에 맞는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미래의 제주산업을 위한 제주공연예술진흥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參考文獻

1. 單行本

백기수, 「미학」,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2.

한국문예진흥원, 「예술행정」, 1987.

한국문예진흥원, 「문화정책」, 1988.

한국문예진흥원, 「문화운동」, 1989.

John Pick, 「Arts Administration」, London : E. & F.N. Spon Ltd, 1980.

Dick Netzer, 「The Subisdized Mu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Kelvin V. Mulcahy. C. Richard Swam, 「Public Policy and Arts」, Coiorado : Westview Press, 1982.

2. 論 文

金玟湜, 「한국예술전문직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金炳翼, "지방문화에의 시각과 전략", 「사상과 정책」, 겨울호, 1985.

김성수, 「한국공연예술행정의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박이준, 「한국문화행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송하진, 「한국예술행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李善文, "문화관광으로의 전환을 위한 방향모색", 「제대논문집(인문·사회)」 35, 1992.

이종인, "문화예술행정이란 무엇인가?", 「문화예술」 통권 제104호, 1986 "예술행정의 전문화", 「문화예술」 통권 제109호, 1987.

劉晟龍, 「지방문화육성을 위한 문화정책 방향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윤우학, "국제화시대, 우리 문화예술계의 전망과 대응책을 모색한다" 「문화예술」 통권 제176호 1994.

尹鐘佑, 「시흥시 문화행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鄭弘翼, "문화행정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논총」, 제27권 1호, 1989.

鄭弘翼, "문화행정연구", 「한국행정학보」 제25권 4호, 1992.

최진용, "지방문화현황과 발전방안", 「정경문화」 통권 제179호, 1980.

최영수, 「한국직업합창단의 연주 실태조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3. 其他 자료

동아국어사전연구회, 「동아새국어사전」, 1992.

제주도, 「특정지역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제3권)」, 1985.

제주도, 도, 시, 군 조례집.

제조도, 시, 군 '92-'93년도 예산서

mbc뉴스데스크, 1993. 9. 16.

mbc뉴스, 1994. 2. 5.